

군산-서천, 금강권 관광광역화 사업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활동, 공동 마케팅 위한 시설·홈페이지 공유·활용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해양·생태관광 인프라 활용 관람객 유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3일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 박물관에서 첫 회의를 가진 3개 전시관은 상호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6인(각 2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향후 금강권 관광광역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서는 ▲ 3개 전시관 순환버스 운영 등 상호 연계 방안 ▲ 공동 홍보물 발간 및 교환에 따른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특히 동백대교 개통 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동백대교 개통 이후 핵심 관광지인 3개 전시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충남과 전북의 관광 광역화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군산시는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때 이른 고온현상과 일교차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중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은 식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면서 ▲식중독의 이해 ▲발생사례 ▲위생관리 요령 ▲조리실 안전사고 예방



정현율 익산시장은 11일 시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했다.

정현율 익산시장, 국비확보 총력

세종시 방문, 중앙부처에 현안 반영 건의

정현율 익산시장이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시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담당 국·과장과 면담하고 익산시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보로 펼쳐졌다.

이날 건의된 사업으로는 ▲주얼리 단지 일대공장 건립사업(72억원) ▲ 하수찌꺼기 김량화 사업(147억원) ▲ 남부2·1, 2-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90억) ▲ 익산 왕궁 축사단지 조성사업(82억원) 등이다.

특히 식품수도로서 기반을 닦고 등

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 비축·공급센터 건립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비 상한액에 대하여 자료를 전달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교통의 요인인 익산의 장점을 십분 활용, 전북·충남권 보훈대상자의 전조기지가 될 ▲전북권 보훈병원 건립 건의를 통해 복지분야의 현안을 쟁겨 눈길을 끌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민선7기 현안사업 추진의 단초가 될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교육 실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에서는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제도일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이용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가 권리·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청 정영서 주무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역 의료시설인 군산의료원과 연계해 교육에 참석한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견강 겸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서울 성동공고 주얼리디자인과 익산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 문화체험

학생·교사 80여명 패션단지 방문

영·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 사항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교식 교장은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와 신학협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종기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장은 “지역 구분없이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해도록 해 익산시권역 내 대학 입학과 더불어 지역 주얼리산업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우병희 기자

김종인 원광대 명예교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선임

김종인 원광대 명예교수가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에 선임됐다.

김 교수는 이로써 기존에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된 ‘인류건강연구(Journal of Human Health Research)’를 포함 모두 3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종인 교수는 앞으로 고령화 및 노인정신건강·여성건강안전·인류건강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해당 저널에 수록될 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김종인 교수는 최근 5년간 국제 SSCI 저명 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해왔으며, 현재 12개의 노년학 관련 국제저널 편집위원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 한국보건복지회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우병희 기자

농협 군산시지부, 호우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봄사활동을 펼쳤다.

11일 농협 직원 60여 명은 대야면 3개 농가에서 침수피해 시설 복구 및 두루 보식작업 등을 실시했다.

김규창 지부장은 “집 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군산시와 협



조제 재해발생 시 농촌지역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